

'청정지역 명성 지키다'

무주군,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 운영 소규모 농가 209호에 접종·예찰 강화

충북 보은군(젓소농가)과 정읍시(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무주군에도 비상이 걸렸다. 무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발생 농가가 관내 젓소 농가들과 같은 우유 제조사에 원유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긴급회의를 열고 역학조사를 위한 이동제한에 들어갔으며 무주 IC

남남의 광장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외에 오산리에도 AI·구제역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아울러, 젓소 농가 6개소 405마리에 대한 일제 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일까지는 나머지 소와 염소 등 우제류(총 4백 농가, 23,747마리)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날마다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사무소에 발원 소독조와 안내너기를 설치하는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업소독과 축산담당 이은창은 "질병 없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이 무주군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AI와 구제역 창궐을 막아낼 것"이라며 "그리기 위해 관계 기관, 농가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며 마음을 모아 가족전염병 클린지역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총 122,398마리로 군은 AI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501건의 소독필증을 교부한 바 있고 공동방제단을 통해 소규모 농가 209호(3,398마리)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가별 담당공무원제 추진, 농가 간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관련 정보 공유에도 만전을 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본격 추진

2024년까지 550억원 투입... 테니스장·다목적 체육관 들어서

완주군청사 인근에 29만6000㎡ 규모의 종합 스포츠타운이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된다.

군은 2017~2024년까지 550억원(국비30%, 도비 10%, 군비 60%)을 투자해 군청사 인근의 용진읍 운곡리 일대 29만6000㎡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은 4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1단계 사업으로 2018년도 익산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테니스 경기장을 완주군에 개최하기 위한 국제규격 16면의 테니스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66억이 투입되는 테니스장과 관련, 군은 국비 15억6000만원,

도비 10억1500만원 등 총 25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올 7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및 실시계획을 완료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 내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 16면 및 클럽 하우스가 조성되면, 전국체전 테니스 경기의 완주 유치는 물론, 체전 전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 체전대비 전지 훈련원 유치 등을 통해 완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 2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7억을 투자해 축구, 농구, 족구장,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단계 사업인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2020~2022년까지 142억6000만원을,

4단계 사업(2022~2024년)인 관공석 3000석 이상 규모의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해 153억50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앞으로 2~4단계 사업의 순조로운 순항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일 군수는 "그동안 군은 체육시설이 부족해 도민체전 한 번 개최하지 못하는데, 주민들 또한 최상의 시설에서 생활체육을 영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기한 내에 완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각종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울러, 안전진단과 병행하여 규제 개혁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앞으로 "국민이 국유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3.0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파출소,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사진 정비

장수경찰서(서장 정준호) 장수파출소는 201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사진을 일제정비했다.

우리마을 담당경찰관은 마을 주민들이 경찰관과 가까이 있고, 애로 및 건

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회관에 담당경찰관 사진과 연락처를 게시함으로써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핫라인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 종합복지관, 수강생 모집

완주군 종합복지관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2017년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상반기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반인 양식조리기능사를 비롯해 실버 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 등 30개 강좌 40개 반으로 총 557명을 모집한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강좌인 요가, 통기타 등 2개반도 운영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1인 1강좌로 수강을 제한한다.

수강료는 4만원으로 수강신청시 현금 납부하며,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한부모대상자는 수강료가 면제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등기신청 의무 기한 알려드려요

무주군, 문자 서비스 제공

무주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해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 서비스는 주민들이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료」가 부과된다.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 김연홍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 기간에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신청기한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시행을 통해 등기해태 비율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효도 라디오 300개 지급

자살·치매예방 목적

완주군이 60대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영위는 물론,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효도 라디오를 보급한다.

8일 군은 최근 자살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어르신의 우울감 완화를 통한 자살 감소와 치매예방을 위해 효도 라디오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도 라디오는 소형 라디오 기능을 중심으로 일부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로, 최근 들어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과 함께 경증 치매예방에도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군은 우선 각 읍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우울위험군으로

확인된 200명을 선정, 효도 라디오를 지급했다.

또한 추가 지급 대상자를 파악한 뒤, 추가로 100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어르신 우울감 사 확대 실시를 통한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효도 라디오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 우울감을 떨쳐내고 행복한 삶을 회복시키는데 적당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어르신의 우울과 경증 치매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부실공사 '명예감독관' 이 막는다

진안군, 3000만원 이상 공사 대상 집행

진안군은 8일 부실시공과 각종 공사장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예 감독관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도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명예 감독관을 지정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즉시 발주하여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공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면 부실시공이 우려돼 인근 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감독관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 현장에 상시 상주 할 수 없어 명예 감독관을 통해 기초, 기성,

완료 시까지 꼼꼼하게 감독하고 시공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발생 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공사장 정비 임차료, 인건비, 식비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명예 감독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의 편의와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덕담 있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상하수도 사업 관계자, 소통 간담회

완주군은 8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단과 현장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건설하고 안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교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완주군은 고산면·비봉면·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에 44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삼례읍·봉동읍·용진읍·상관면·고산면·비봉면·화산면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증설에 723

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2017년 상수도 분야에 구이면·소양면·화산면·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발주해 35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수도 분야에는 이서2단계, 원가천(경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염암 및 원고당 마을하수도 설계용역을 발주해 297억원을 투자한다.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사를 위한 공사 아닌 주민을 위한 공사가 돼야 한다"며 "공사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장수군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8일 장계시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무원과 재난안전네트워크 관계자 등 40여명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안전사고 예방운동을 펼쳤다.

특히,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무진장소방서와 연계해 관내 가스취급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안전재난과장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전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면 이장협의회 박태열 위원에 공로패 수여

진안군 용담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영래)는 8일 이장회의를 겸한 2017년 정기총회에서 진안군의회 박태열 전문위원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박태열 전문위원은 2014년부터 3년간 용담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용담면 대표소득 자발인 깃이의 작목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가족테마공원·체력공원의 조성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 및 관광객 유치에도 힘썼다.

이영래 회장은 "용담면으로 발령받아 3년간 주민들과의 소통행정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에 발 벗고 나서 용담면에 큰 발전이 있었으며, 용담을 가장 사랑했던 면장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생활개선회 부남면지회 주택화재 가정에 생필품 전달

한국생활개선회 부남면지회(회장 주정숙)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불과 쌀, 된장 등 생필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부남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남면 소재 주길수 씨 집(행랑채, 품채 전소)과 권정녀 씨 집(행랑채 반소)에 불이 났으며 전소 피해를 입은 주 씨 가족은 그동안 마을회관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을 모은 한국생활개선회 부남면지회 회원들은 "모두가 들뜨고 즐거워하던 설 연휴에 화재가 나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힘 내서서 예전의 생활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 진안 방문

전북소방본부 이선재본부장은 지난 7일 진안군원시장을 방문, 화재 취약지역에 대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시장 관계자와 상인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현장 지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재강조에 중점을 두고 불법 주차 및 노점단속 등을 통한 소방통로 확보와 가연물 방치행위 금지, 영업시간 없는 점포 출입제한 및 야간 경비인력확보, 비상구 관리 철저 등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전달과 소방관련 불평사항 청취도 이루어졌다.

이선재 본부장은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명피해 우려 취약대상에 대하여 불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출동훈련,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